

출판소식

석굴암 본존불 보는 4가지 견해

최성은교수 '다보' 17호에 발표

“석굴암은 치밀한 계획하에 축조된 석굴이며, 신라불교의 핵심이 되는 요체와 대승불교의 보편성이 함께 표현되었다.”

덕성여대 최성은교수(한국미술사)는 계간 <다보> 제17호에 발표한 '석굴암 본존불상을 보는 4가지 견해'란 논문에서 △현존 유물자료와 석굴이 향하는 방향을 근거로 제기된 이미타불설 △중창상량문 기록과 <법화경> <관불삼매해경>을 바탕으로 한 석가불설 △화엄사상이 조성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 비로자나불설 △부다가야 대각사 성도상과의 관련성 등 4가지로 정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호 <다보>에는 정경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시론 '깨끗한 정치를 위한 불자들의 뭉-청정사회'와 호적(胡適)과 스즈키 다이세츠의 중국 선종사 계보연구, 1963년 동아일보 지상을 통해 불교계 정화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인 창당스님과 조지훈 시인의 '불교 현실관'을 게재한 지상논쟁이 실려 눈길을 끈다. 이밖에 '불교 개종운동의 아버지 암베드카'(김무생)와 '발해불교 문화유적'(방학봉)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혜주스님 '어린이 다도' 등 펴내

포항 육천사 주지 혜주스님이 지난 80년 연화유치원을 개원한후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어린이 예절교육을 위한 <어린이 다도>와 불교교육 지침서 <어린이 불교학 교재>를 발간했다.

해인사 율원스님들이 감수한 <어린이 불교학 교재>는 불교 유래전과 전설편, 예절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곁들여 유치원생 학습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포항육천사의 인가를 받은 <어린이 다도>는 다도와 관련한 모든 예절을 쉽게 설명했다. (0562)72-6700

민족사 '미륵경전' 등 3권 펴내

잠시한 해설과 상세한 역주를 완비한 불교경전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 민족사(사장 윤정화)가 <원각경·승만경> <백유경> <미륵경전>을 동시에 펴냈다. 이로써 총 22권의 경전이 나왔다.

<원각경>은 부처님께서 문수 보현 보안 금강장 미륵 등 12보살과의 문답을 통해 대원각(大圓覺)의 묘리와 그 관행을 실한 경전이며, <백유경>은 백가지의 교훈적인 비유를 모은 경전이다. <미륵경전>은 미륵상생(上生)신인과 미륵하생(下生)신앙을 담은 경전이다.

수월스님 일대기 '달을 듣는 강물' 저자 김진태 검사

“자취없이 살다간 고승 발자취 삼독빠진 우리네 삶 청량제”

“가진 것은 오직 산과 물과 바람 밖에 없었고, 그림자 없이 살다가 자취도 없이 열반한 스님이 사바세계에 밝힌 등불을 3독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의미있게나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서사건과 상무대 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등의 담당검사로 유명한 대검 중수부 김진태검사(44)가 근대 고승 수월스님(1855~1928)의 일대기를 고증을 통해 복원한 <달을 듣는 강물>(해남 刊)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월스님은 근대 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스님의 제자로 만공·해월스님과 더불어 '경허의 세 달'로 일컬어지고 고승이다. 그러나 그의 수행실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김진태는 이런 수월스님의 자취를 찾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내 도문시와 지리산 오대산 충남 흥성군 일대 등을 직접 답사, 마침내 그 일대기를 완성했다.

김진태는 20여년간 지리산 자락에서 공부할 무렵 수월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0여년간

부터 일대기를 쓰려고 준비해 왔다. 그러나 스님의 삶의 자취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업무를 못하다가 수월스님의 문순인 정암스님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사' 등의 도움을 받아 94년부터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다.

어려운 작업끝에 유려하고 서정적인 문체의 따뜻한 책을 완성한 김진태는 “수월스님은 자

간도땅에 주장자 세운 스님 일생그려 인세 전액 '연변 사찰건립' 비용으로

비와 지혜를 삶과 한 덩어리로 이루어 낸 성자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하는 수행자, 수행하는 일꾼으로 살다 가신 스님의 감동어린 삶은 내게 사심(私心)없이 살아갈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1910년대에 간도 지방으로 건너가 화엄사를 창건하고 그곳에서 입적한 스님은 일제시대에 국경을 넘어오는 조선인들에게 주먹밥과 짬뽕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일과로 삼으면서 중생을



부양했고, 다비식 때는 일주일 동안 불기둥이 만주 벌판에 솟아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수월스님은 한마디 살법이나 글을 남기지 않아 불교계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져 왔다. 지난 93년 성철스님이 입적했을 때 휴가를 내고 해인사에 내려가 다비식을 지켜보았을 만큼 독실한 불자인 김진태는 수월스님이 보살행을 실천한 만주땅에 절을 세우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책의 인세 수입 전액은 화엄사가 있던 중국연변 도문시 일광산에 절을 세우는 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사진 곁들여 불교예절 쉽게 설명

깨달음을 향한 불교예절

— 권영환 지음

<예배하는 마음에 자비를> <우리 사찰의 벽화 이야기> 등을 펴내며 사찰문화를 친근하게 소개해 온 권영환교수(덕은불교대)가 불교예절의 모든 것을 사진을 곁들이며 쉽게 설명한 책을 냈다.

불교예절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서 당황하게 되고, 불자가 되려 해도 예절과 의식 절차를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권교수는 이같은 이들을 위해 일상 수행 속에서 부딪히는 인사법과 불가집, 경전에 대한 예절, 주차 예절 등 불교예절의 모든 것을 쉽고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 불교예절의 필요성과 사찰 관광 예절, 기도·법회 예절 등도 곁들였다. <전원문화사 6천원>



미얀마 1백세 스님의 생활법문

그대 왜 아직도 미망에서...

— 신동욱 옮김

화  
세  
의  
책

은 국민이 스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존경하고 생활의 근본을 사원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나라, 공원의 수위가 영어-팔리어 대역(對譯) <아비담마교의강요>를 읽을 정도로 불교가 생활화 된 나라 미얀마,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의 한 분인 아난 티라라 스님의 법문집 <그대 왜 아직도 미망에서 헤매는가>가 번역됐다.

올해로 꼭 100세가 된 스님은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구수하게, 때로는 학생다운 예리함으로 불교의 기초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알기 쉬운 생활법문을 통해 지혜롭고 청정한 삶, 평화로운 삶을 위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장승 5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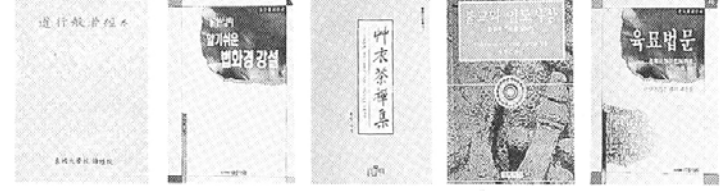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도행반야경 외(김수진·이창섭 옮김)>=(도행반야경)은 반야바라밀의 법(法)과 이를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 경은 후한 광화 2년에 한역된 것으로 반야경 계통의 최초의 역경본이다. <마하반야초경>과 <소품반야바라밀경>도 함께 번역했다. <역경원 1만2천원>

▲<초의茶禪集(통광스님 역주)>=조선후구 대 선사이자 한국 다도(茶道)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妙衣)선사의 <다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를 경남 하동군 칠불사 주지 통광스님이 번역, 주를 달고 해설을 붙였다. <선문사변만어>는 처음 번역됐다. <불광 8천5백원>

▲<물교와 인도사상(김형준 옮김)>=기원전 6세기 경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게 된 문화·정치·사회적 배경등을 통해 초기불교의 근본사상을 다뤘다. 저자인 비슈와나스 프라사드 바르마 교수(인도 Pantan)는 초기 불교를 베다와 우빠니샤드 및 다른 인도사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했다. <예문서원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이론 직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호 립	
2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 별	
3	능엄경 주해	은 허 동국역경원	
4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5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6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현·홍용 고려원미디어	
7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장 민 족 사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용 용 화	
9	역사로 읽는 원효	김상현 고려원	
10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구입문의:(02)737-0695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석불 이야기 그 첫번째

10여여년간 남산의 돌부처 찾기로 세월을 보낸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 돌부처 순례기 !!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

**돌부처**

남산의 한 골짜기에서 홀연히 맞닥뜨린 돌부처의 미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친숙한 얼굴  
돌부처.  
때로는 근심어린 얼굴로  
때로는 잔잔한 미소로,  
세상사에 찌든 채  
자신조차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알 수 없는 편안함으로 다가서는 돌부처.  
돌연 마음 밑바닥까지 투명해짐을 느낄 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40여 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남산 돌부처의 비밀한 세계를 엿보시오.

신국문 256쪽  
값 6,500원

출판사 여시이론 전화: 737-8881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

경주남산 석불 이야기 '돌부처'의 모태가 된 남산 석불이 경주와 울산으로 갑니다.

지난 해 12월에 열렸던(서울 세종문화회관 계 3전시실) 「아, 그 미소 구원의 미소여!」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에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경주와 울산에서 각각 7일간 전시회를 엽니다. 와서 보시고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 전시일정

경주  
▶ '96 3월 22일 ~ 3월 28일 경주 현대 호텔 특별 전시실

울산  
▶ '96 3월 29일 ~ 4월 4일 울산 한마음 회관

\*현지 전시실에서 '돌부처'를 특별 판매합니다.

명사추천

법정스님 '무소유'

십 사오년 전의 일이다. 법정스님이 쓴 <무소유(無所有)>란 수상집을 읽은 뒤였다. 너무도 주옥같은 글귀에 매료되어 스님을 꼭 뵈고 싶은 욕심이 가슴을 달고 있는 때였다.

단비가 와서 방에서 키운 난분을 밖에 두고 시중에 나섰다. 별상이 너무 따가워 급히 절로 가게 된 이야기며, 그 후에 난분을 나누어 주고 집착에서 벗어난 깨우침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잔잔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호소가 있고 불남 다투어 일어서는 어린 싹의 웃음이 있고, 장삼 자락이 넘어 그 흡인력에 놀라기도 하였다. 준비를 배우는 힘이 문자속에 스며 있어서 글의 배품이 한량없음을 되새기면서 법정스님을 보기 위해 불일암을 찾기로 하고 나선 길이었다. 고속버스로 순천에 도착, 차를 바꾸어 타고 송광사 입구에 하차했다. 정심은 음식점에서 해결하고 산을 오르기로 했다.



양원식 (해동고 교장·시조 시인)

문자속에 흐르는 깨침의 말씀 “크게 버리는 사람 크게 얻는다”

동행한 추경(秋耕) 형과 연탄난로가로 가서 식사 주문을 하고 주인에게 “법정스님을 꼭 보기 위해 부산에서 왔노라”면서 불일암 가는 길을 물었더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 스님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몇번이고 스님을 꼭 보았으면 하시는 전갈이 와도 가지 않고 묵묵한 치신다”고 했다. “기도중이어서 어떤 사람도 만나 주지 않는다”는 말을 주석으로 달았다.

이야기를 듣고 설설함이 컸다. 그날수가 있을까. 마지막 이승 아들의 손을 잡아보 시켰다는 간절함을 저버릴 수 있을까. 숙연(俗緣)을 끊는 법이 이래도 되는 걸까를 반문하면서 송광사 경내만 돌아보고 왔다. 직접 뵈고 “왜 그랬습니까” 하고 여쭙 불 기회를 남겨둔 셈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천

으로 계신 스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연을 여쭙었다. “노보살 한분이 다녀갔습니다. 이 절 큰 시주이신 분이 향이 그윽한 난초를 달라 하시기에 ‘물성(物性)이 너무 까다로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했더니 만, 돌아서서 ‘물 한 포기 나누어 주지도 않는 것이 어찌 중이고 하시어 순간, ‘내가 가질 것이 못되는구나, 나누어 줘야지’ 했지요.”

“소유의 마음이 크면 수록 그 깨침도 크다는 것을 알았노라”는 말씀이 바로 무소유로 얻어진 ‘환희요 부처님의 마음자리임을 짐작하였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소유의 이치가 아닐까. 법정스님이 쓰신 ‘무소유’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